

A Study 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Religious Educat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2022 Curriculum: In the Context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Yulok Kim*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bate on religious educ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private schools and to renew the concept of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Contents] To accomplish this, we will first examine the concept of religious education and then identify the specifics of the controversy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ndependent schools regarding religious education in Korea's multi-religious context. Based on this, we will reconceptualize the meaning and nature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in the Korean context.

[Conclusions] As a result, it is hoped that it will bring a new perspective and vision to the debate between independent schools and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by recognizing the universality of religious education as a liberal arts subject in the National Curriculum, while at the same time affirming that the particularities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can coexist.

[Keywords] Religious Education, Issues in Religious Education, Reconceptualization, Liberal Arts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Yulok Kim(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E-mail : yulokrscj@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종교교육의 재개념화 고찰: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의 맥락에서

김울옥

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종립학교간의 종교교육과 관련한 논쟁을 살펴보고 가톨릭 종교교육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종교교육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의 다종교적 상황에서 교육부와 종립학교 간의 종교교육과 관련한 쟁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한다.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서 종교교육은 <종교> 교과와 성격에 대한 교육부와 종립학교 간에 존재하는 이해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갈등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교육부는 종교교과를 ‘종교일반에 대한 교육’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종립학교는 건학이념의 실현을 위한 ‘종파 교육’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종교> 교과에 대한 교육부와 종립학교 간의 개념적, 법적, 실천적 쟁점을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톨릭 종교교육의 입장에서 종교교육 내용, 종교교육의 방법, 종교교육자의 재개념화를 통해 종교교육이 지니는 의미와 성격을 재개념화하고자 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은 가톨릭적 특성을 지닌 인문교양교과이다. 둘째, 가톨릭 종교교육의 방법은 학습자의 자유를 존중하며 이를 신앙과 연결하여 자기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실천적 방식이다. 셋째, 가톨릭 종교교육에서 교육자는 그리스도교적 영성을 지니고 자기 삶을 통해 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톨릭 종교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 교과가 추구하는 방향을 가톨릭의 종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실천한다. 즉,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기르하고자 하는 지향을 지닌 교육자가 자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바탕을 둔 초월적 전망을 가르치는 ‘전인적 삶을 위한 영성교육이며 교양교육이다.

[주제어] 종교교육, 종교교육의 쟁점, 재개념화, 교양교육

I.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세계화(globalism)와 지역화(localism)를 결합한 ‘글로칼리즘’(glocalism)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화의 한계성을 지양하고 세계화로서의 통합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함께 지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종교교육도 중립학교에서 실시해 온 ‘종교 교육’을 지양하고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2011년에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고등학교 교양 교과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생활과 종교> 교과를 <종교학>으로 명명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Kim, 2011: 45). 2015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는 종교와 연관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활 등을 토대로 종교와 인간에 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데에 둔다. 이것은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이 체계성과 효율성, 보편성을 통해 종교와 연관된 인간의 전인적(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및 행동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종교 교과를 통한 교육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Sohn, 2016: 87). 또한 중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이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문제는 교육부와 중립학교 간에 종교교육의 성격과 관련하여 오래동안 갈등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공교육이 갖는 보편성과 종교현상의 구체화된 종교문화와 관련된다(Chung, 1986: 22-23; Ko, 2007: 20-23). 교육부는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이래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공교육의 종교교육 수행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해왔다. 하나는 종교교육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노력이다. 이것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를 정식 자유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제5차 교육과정에서 성적 평가 대신 이수 여부만을 기재함으로써 <종교> 교과로 인한 대학 진학시의 유불리를 피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종교교육’으로 인한 문제를 ‘종교학’ 교육으로의 종교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 인증제도와 교과목 및 교과과정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변경 및 ‘종교교육’ 담당 교사 연수 등이다(Ryu, 2013: 18-19). 제7차 교육과정은 종교교육의 성격을 규정하여 교양 선택교과로서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종교‘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즉, 종교교과가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교양 선택교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 안에서 종교교육의 성격은 ‘종교문화교육’(Yun, 1986; Chung, 1986), ‘종교 자체를 이해하는 교육’(Lee, 1987: 38), ‘인성교육과 연계’(Kim, 1992), ‘도덕교육과 연계’(Ryu, 1994),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의 관계’(Ko, 2001: 79; Sohn, 2010: 127-9) 등 다양하게 설명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종교학의 성격이 ‘종교와 연관된 지식, 경험, 생활 등에 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갖추어 종교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자발적 실천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다종교 다문화사회인 한국사회에서 학습자의 성찰을 통해 종교를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종교와 교육의 접점을 통해 종교교육의 일반화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은 종교교육을 종교학적 접근으로 단일화하여 신앙교육적 종교교육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지식과 객관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종교에 대한 지나친 인문학·사회학적 접근으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종교무용론이나 종교 유해론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Sohn, 2016: 88-89; Kim, 2016: 39-45). 또한 교과와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며 다양한 개념과 용어, 사상 등 학문적인 접근으로 학생의 내적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종교교사가 교육학적 전문성을 지니고 다양한 종교학적 성찰과 해석의 능력을 가질 것을 더 크게 요구하는 상황으로 교사의 수급과 관련하여 실효성에 논란을 담고 있다(Sohn, 2016: 88-89; Kim, 2016: 39-45).

본고에서는 종교교육과 관련한 교육부와 종립학교간의 논쟁을 살펴보고 가톨릭 종교교육의 맥락에서 종교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종교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교육부와 종립학교간의 쟁점을 개념적·법적·실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인문교양 교과로서의 종교 교과가 갖는 보편성과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갖는 특수성이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이 지닌 종교교육의 내용, 종교교육의 방법, 종교교육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인간 삶에서 요구하는 종교적 물음과 필요성, 내면적이며 영적 삶에 대한 성찰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로써 인문교양 교과로서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교육의 재개념화를 통해 종립학교와 교육부 간의 논쟁에 새로운 안목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을 통한 비교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종교교육의 개념

현재 종립 중등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은 '선교교육'(education for mission), '교목'(school ministry), '교리교육'(catechism)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종교에 의한, 종교문화에 대한, 또 종교적인 교육을 통칭'한다(Choi, 2005: 312). 박범석은 종교교육의 유형을 특정 종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전수하는 교리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education of religion), 학문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발

건하여 개별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증대시키고 하는 ‘종교일반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그리고 인간 내면의 종교성(religiosity)에 관심을 갖고 이를 체현하고자 하는 ‘종교적 교육’(religious education)으로 구분한다(Park, 2003: 117-123). 그런데 종교교육은 세 가지 정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세 가지 정의가 반드시 하나씩 독립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종교교육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상황, 목적,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움직이는 요소’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변하며 초월적인 성질을 담보하고 있는 종교적 진리와 같은 ‘고정된 요소’이다. 무엇보다 종교교육은 ‘종교적 진리’를 습득하게 만드는 ‘교육’으로, ‘종교적 진리’인 종교현상과 초자연적 진리를 ‘교육’하는 것이다(Choi, 2005: 314).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종교적 진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며, 종교적 진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의 종교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각급 중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양 선택교과로서의 <종교> 교과를 통한 교육을 의미한다.

가톨릭학교를 포함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건학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교육은 <종교> 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다른 수업 시간 등을 통해 종교교육을 운영하는 것이다. <종교> 교과는 일차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각급 중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생태와 환경 같은 과목들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선택교과로 편제된 교양과목 중의 하나이다. 비공식적인 종교교육은 예컨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혹은 철학이나 윤리 등의 과목들을 이용하여 종교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많은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정규 수업 시간 혹은 비공식적 종교교육 등을 통해 진행된다. 비공식적 종교교육에는 미사, 예배, 법회 등의 전례 뿐 아니라 각 종교별 절기 행사, 조회 시간과 방과후 시간 등에 진행되는 명상과 기도, 종교 관련 동아리 운영 등이 포함된다.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대체로 학교선택권과 학생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신앙교육을 받아온 종교교육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종립학교의 기반이 되는 특정 신앙이 강조된 교과를 토대로 신자와 비신자로 구성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교육이 ‘특정 신앙을 강조하여 신앙인으로 육성하려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강제 참가’를 원칙으로 적용될 때에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인권 침해 소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병철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한 공공성 속의 자율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Ko, 2005: 111-113, 129). 한편 고진호는 종교교육이 교과중심적 지식 전달이나 형식화된 종교의식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은 종파의 교리적 지식이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효과는 있지만 종교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종교성’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지식 중심의 종교교육은 종교교육의 내용을 체화(體化)하기 어려우며 종교교육의 내용을 ‘지혜’로 승화시키기 어렵다고 보았다(Ko, 2006: 18)

2. 종교교육의 쟁점

<종교> 교과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정규과목이 되었다. 이는 1980년대 종립학교들이 종교교과의 정규화를 요청했을 때 교육부는 학생들의 자기 수양과 인문학적 교양교육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결과이다(Kim, 2007: 43). 이후 <종교> 교과는 여러 차례 국가교육과정의 변화를 거치면서 <생활과 종교>, <종교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교육부가 종교교육의 성격을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실행되어온 ‘종파교육’에서 ‘종교일반에 관한 교육’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Kim, 2020: 2). 따라서 1980년대 종립학교와 교육부가 이미 서로 다른 교육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종교교과 확대 및 종교 교과목의 정규화 과정은 학생, 종교계 사학법인, 그리고 교육 당국, 세 교육 주체의 권리와 책임의 상충에서 갈등 요소를 담고 있다. 이 갈등은 크게 개념적 측면, 법적 측면,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Choi, 2005: 215-228 참조).

1) 개념적 측면의 쟁점

개념적 측면의 쟁점은 종립학교와 교육부 간에 <종교> 교과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Choi, 2005: 220-223). <종교> 교과는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에서 논리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과 함께 ‘자유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는데,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을 거치면서 ‘교양 선택교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교>는 체계적인 교과목으로 자리 잡았고, 정부승인 종교교과서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종교교육자 자격을 부여하는 연수 과정이 생겨나 종교교육자가 정식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을 거치면서 <종교> 교과는 구체적인 교과과정이 마련되었다. 『종교』 교과서 집필에서도 표준지침이 마련되어 체계화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2007-2009)에서 <종교> 교과의 명칭은 2007년 <생활과 종교>였다. 그런데 2011년 제7차 교육과정 재개정에서 <종교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2007-2009)은 <종교> 교과의 교육과정이 보다 체계화되고 신앙교육보다는 종교일반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Kim, 2016: 33).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적 개정판’(Sohn, 2016: 80)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종교> 교과의 성격을 그대로 지속하였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종교학> 교육과정 지침을 더욱 세분화하여 특정종교나 종파교육을 지양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었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관련한 ‘종교교육 안의 인성교육’과 ‘인성교육 안의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는 종립학교의 학교 정체성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를 갖는다. 즉 종교교육이 인성 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할수록 종교교육은 인성교육에 비해 존재 이유가 약화되고, 양자의 차이를 강조할수록 종교교육은 인성교육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Kim, & Ko, 2016: 180). 이와 관련하여 김귀성은 과연 <종교학> 교과가 모든 국내 고등학교의 선택교과 중의 하

나로서 공통적이고 일반적 기준으로서 적합성을 갖는지, 교육 내용이 고등학교 교양선택 교과 내용으로 적절한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Kim, 2016: 34). 손원영은 2015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의 <종교학>이라는 학문의 구조에 갇혀 지나치게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지식 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Sohn, 2020: 31). 신광철은 종교 일반에 대한 ‘종교문화교육’과 종립학교의 ‘신앙교육’을 내용적 일관성 없이 무리하게 하나로 묶어내기보다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Shin, 2011: 15).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학> 교과는 ‘종교에 대한 지식 교육’인지,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인지, ‘영성에 관한 교육’인지, ‘교양인을 양성하는 교육’인지, ‘신앙인을 양성하는 교육’인지 등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성격, 종교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종교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재개념화가 요구된다.

2) 법적 측면의 쟁점

법적인 측면의 쟁점은 <종교> 교과의 실행과 관련된 ‘자유’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종교교육은 종립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종립학교가 갖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하는 갈등 요소를 갖는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을 갖게 되는 과정 및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신앙의 선택, 신앙의 변경(개종), 신앙의 고백, 신앙 불표현(침묵) 및 무신앙의 자유를 말한다(Choi, 2005: 215-219). 신앙의 자유를 지닌 각 개인은 종교교육을 받을, 혹은 받지 않은 자유를 갖는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학생들이 지닌 ‘신앙의 자유’와 종립학교가 갖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부딪혀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중학교 무시험제도(1967년)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1974년) 시행 이후 종교계 학교에 배정된 타 종파 혹은 무종교 학생들이 종립학교에서 시행되는 종교교육에 대해 신앙의 자유를 요청할 때 생겨나는 갈등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4년 D 고등학교의 경우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간의 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를 교양 선택교과로 바꾸었다. 또한 이수 단위를 2단위로 고정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아울러 평점을 부여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상황 난에 이수교과목과 이수 여부만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리고 개별 학교에서 종교교과를 운영할 때 반드시 다른 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Chung, 2001: 7). 이에 대해 고병철은 종립 사학들이 요청하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지원 후추첨제’의 확대가 실제로는 학생이 종교만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 학교가 종교만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선택권이나 학생선발권보다 오히려 학교 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Ko, 2005: 115). 반면, 종립학교는 종교교과의 복수교과 설치 의무로 인한 부담,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타종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종이나 비신자 학생들을 신자로 만들기 위한 온전

한 의미의 ‘종교교육’으로 보는 편견, 종립학교에서조차 ‘종교학’적 접근의 종교교육만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상황 등에서 종교교육의 자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Cho, 2016: 105, 117-118). 따라서 종립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종립학교가 갖는 ‘종교교육의 자유’의 문제로 인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종교교육에 대한 재개념화가 요구된다.

3) 실천적 측면의 쟁점

실천적 측면의 쟁점은 <종교> 교과와 교과의 개설, 교과서, 종교 교사 등의 문제에서 갈등 요소를 갖는다(Choi, 2005: 223-228). 첫째, 교육부의 <종교> 교과와 개설은 종립학교에서뿐 아니라 국공립 일반학교에도 <종교> 교과가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종교교육의 목적이 종교적 상식인(常識人) 양성과 인격도야 그리고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과 <종교> 교과와 명칭을 <종교>, <생활과 종교>, <종교학>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종교학>의 성격은 종교와 연관된 지식, 경험, 생활 등에 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건전한 종교관을 가진 상식인의 양성’과 ‘종교인의 양성’의 중첩된 목표(Chung, 2001: 8)의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종립학교가 종교 교과를 개설하여 이루고자 하는 종교인 양성의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종교> 교과 내용을 종교 일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여 다양한 종교에 바탕을 둔 종립학교의 정체성 확립과 건학 이념 구현에 걸림돌이 된다(Kim, 2003; Kim, 2005). 특히 <종교> 교과가 교양 선택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교 분리의 원칙’, ‘공립학교에서 종파교육의 금지’, ‘종교 과목의 개설 시 복수 선택’ 등은 국공립 학교에서는 물론 종립학교에서도 교과 개설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실제로 <종교> 교과가 대학 입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과라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에서 교양 선택 교과로서 <종교학> 교과를 선택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Sohn, 2020: 32; Kim, 2001: 35). 또한 <종교> 교과 개설 시 다른 교양 선택과목을 추가 개설해야 하는 복수 선택 의무 사항은 복수 교과의 추가 개설에 요구되는 인력과 비용, 공간 확보 등의 부담으로 <종교> 교과의 실제적 개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 교과서와 관련한 논쟁은 종교교육의 성격과 목적에 따른 갈등과 직접 연결된다. 종교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선정하고 배열한 내용에 따라 구성된다. 인정도서인 <종교> 교과서는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해 종교학적 토대 위에 ‘교양과목’으로서의 특성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는 두 유형의 종교학 교과서의 공존은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즉 기독교학교 관련 단체에서 만든 ‘신앙교육적’ 성격의 교과서인 『종교와 생활Ⅱ』(2018), 『종교와 삶Ⅱ』(2018)과 세종시교육청에서 승인한 ‘다종교·다문화적’ 성격의 교과서인 『종교학』(2018), 두 교과서의 공존은 기독교의 복음 선교를 우선하는 입장과 교육의 중립성을 앞세운 입장 간의 갈등이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ohn, 2020: 31). 교육의 중립성을 우선하는 입장에서는 종립

학교 법인서 발간되는 <종교>, <생활과 종교> 등의 교과서들이 여전히 신자들의 신앙심 확충이나 선교 또는 포교를 위해 편집되어 특정 종교인들을 양성하는 신앙교육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한국의 종교다원적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Ko, 2005: 122). 반대로 신앙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종교학>이라는 명칭으로 제시되는 종교교육이 종교에 대한 균형적 정보(情報), 종교에 대한 사실적 이해에 초점이 모아져 있어서 교양교육과정의 목표와의 상관성이 부족하며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담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Kim, 2011: 34).

셋째, 종교교육자와 관련한 갈등 요소는 종립학교에서의 종교 과목 교육이 대체로 성직자, 수도자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과 관련된다. 종교교육자 양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교육부가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 현직 종교교육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종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온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에 종교교육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교육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자들은 소수의 종교학과나 대부분 특정 종교와 관련된 학과에서 양성된 특정 종교의 성직자 또는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교원 자격검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 이수과목 및 교과교육학 영역을 제외한 교과 내용은 특정 종교학에 한정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Kim, 2016: 44). 김철주, 고병철은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교육자 지망생들은 다종교 상황을 도외시하고, 이로서 종교교육자가 지녀야 할 전문적 자질 함양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Kim, & Ko, 2004: 239). 또한 특정 종교의 성직자, 수도자들은 당해 종교 이외의 종교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Chung, 2001: 10)고 보았다. 하지만 종교 일반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앞세워 종교교육자의 전문적 자질 부족을 논하는 것은 종교교육이 갖는 진리의 보편성을 축소하고 “문화를 단순히 나란히 놓고 근본적으로 동등하고 호환이 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종교 상대주의와 혼합주의를 정당화함으로써,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Cho, 2016: 109). 그러므로 종교교육자에 대한 이해도 종교 교과와 성격과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연결하여 교육부와 종립학교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Ⅲ. 가톨릭 종교교육의 재개념화

1. 재개념화의 배경

<종교> 교과와 관련한 교육부와 종립학교 간의 개념적, 법적, 실천적 쟁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란은 이전 여러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 교

과의 성격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것은 교육부가 <종교> 교과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규정하고 공립학교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음에도 여전히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실행되는 것과 관련된다. 즉, 일반 국공립학교에 교양과목으로서의 <종교> 교과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학>을 종교일반에 대한 교육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시도는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종립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종교교육과정으로서의 <종교> 교과가 일반 국공립학교에서 교양선택 교과로 자리하고, 종립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종교> 교과 특히 교과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가톨릭학교의 <종교> 교과는 많은 경우에 종교교육을 인성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Kim, 2020: 3-9). 이것은 종교교육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지정된 ‘교양 선택과목’ 중의 하나인 <종교학>이 아니라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생활과 인성> 또는 <인성> 교과를 선택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교재 선택에서도 『종교학』 교과서는 물론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에서 편찬한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과 인성』, 『행복교과서』 등이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지식교육과 종파교육을 절충하기 위해 시작된 종교교육이 인성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종교교육자들은 종파교육과 종교지식교육이 혼재된 종교교육과 인성교육 간의 긴장, 그리고 이 긴장관계로 초래된 종교수업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Kim, 2020: 3-9).

송순재는 우리나라 근대적 학교교육이 종교교육의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면서 종교적 차원을 배제한 것이 오늘날 인간성 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으리라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국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종교 문화와 종교 세계로 널리 이끌어들이기 위해 종교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독일의 종립 대안학교를 통해 ‘자유종교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사례를 들어 국가가 규정한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에 내재된 종교성에 눈을 열고 그들 삶이 요구하는 종교적 물음과 필요성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며 대화적인 방식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일종의 모형’으로 제시한다(Song, 2006: 50-52). 그러므로 <종교> 교과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종교> 교과가 공교육에서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으로 자리잡는 동시에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종교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Kim, 2020: 47).

2. 가톨릭 종교교육의 새로운 개념

종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 이해는 가톨릭 종교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 교과가 인간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종교에 대한 삶의 지혜를 통해 학습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즉, 종교교육이 본질적으로 불변하며 초월적인 성질을 지닌 종교적 진리를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교육부와 중립학교 간의 개념적·법적·실천적 쟁점 이전에 종교교육의 내용, 종교교육의 방법, 종교교육자를 통해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의 재개념화는 종교교육 내용의 재개념화, 종교교육 방법의 재개념화, 종교교육자의 재개념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종교교육 내용의 재개념화

가톨릭 종교교육의 내용은 가톨릭적 특성을 지닌 인문 교양 교과이다. 현행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고등학교의 ‘교양’ 교과에 속한 ‘보통교과’이며, ‘생활·교양’의 ‘교양’ 교과군으로 ‘일반선택’ 과목이다. 국립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교양’은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고 정의한다. 백승수는 교양교육이 자유교육이며 고대 그리스에서 연원한 자유교육이 교양교육의 원형이라고 보았다(Paek, 2019: 143). 교양교육은 ‘특정한 목적에 수단으로서 봉사하게 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갖는 품성을 도야하고 자기 목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Son, 2006: 220)으로 ‘인간됨’의 교양을 목적으로 한다. ‘교양’이 인간을 자연적 상태에서 문화적 상태(culture)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할 때 인문 교양교육은 교육 일반의 핵심적 기초이며 교육의 근본은 인문 교양교육에 있다(Son, 2006: 207-209). 인문교육은 자아와 세계의 관련성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에 맞추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탐구이다(Na, 2002: 31). 탁월하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고 영위하려는 인간은 ‘인간다운 마음’ 즉, 인간다운 성품과 심성을 갖추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도 교양교육은 ‘초월적 자아인 주체의 인격적 존재를 각성시키는 교육이 되어야’한다(Kim, 2001: 21).

가톨릭 종교교육은 모든 문화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모든 문화에는 공통된 가치들이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톨릭교육에서 “문화는 ‘보편적인 소명을 지닌 그리스도교 유산의 일부’(Intercultural Dialogue, 29, 33)이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을 도외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해칠 수 있는 이념적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Religious Education, 12). 그렇다고 “여러 종교를 ‘중립적으로’ 비교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혼돈을 야기하거나 종교 상대주의나 무차별주의에 이끌 수” 있다(Religious Education, 12). 따라서 가톨릭 종교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경험으로서의 문화를 해석하여 삶의 경험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우며, 삶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힘을 지니도록 돕는다. 동시에 가톨릭 종교교육은 자신의 삶에 행위의 가치, 즉 삶의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Kim, 2004: 320-322).

교육의 심층에는 종교적 차원이 내면화되어 있고, 종교의 지향에는 교육적 차원이 전제되어

있다(Park, 2003: 3).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은 “인간의 영혼을 교육”하는(La Scuola Cattolica Alle Soglie del Terzo Millennio, 19) 교육의 본래적 가치 실현을 통해 학생들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생활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여 이성의 영역을 넓혀 진리와 선에 문을 열게 하고, 각기 고유한 학문의 상호연관성을 깨닫도록 이끌어준다(Circular Letter to the Presidents of Bishops' Conferences 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17. 이하 Religious Education). 따라서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은 “인간의 초월적 차원에 열린 인간학적 개념”으로 이 과목이 없다면 “학생들은 자아 형성과 인격 계발에 절대 필요한 요소, 그들이 신앙과 학문적 소양 사이에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줄 요소를 빼앗겨 버리게 될” 위험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인문학적 교양교육’의 내용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Religious Education, 10) 가톨릭학교가 갖는 “종교적 차원은 문화에 본질적인 것으로, 인성교육 전체에 이바지하고 지식을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igious Education, 15, 17).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은 근대 이후 지배적 패러다임이 된 과학과 이성 중심의 단편 인간학 개념의 교육에서 잊혀졌던 초월적 차원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 완전한 인간 형성을 지향한다(Koo, 2011: 68).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은 “명시적으로는 종교적이면서 내용적으로는 인문학적인 지혜, 지식, 그리고 예술의 전통을 가르치는” 것으로, “거룩한 배움과 세속적 배움, 신앙과 문화 사이의 깊은 연결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Groome, 2021: 315, 324). 그러므로 가톨릭 종교교육의 내용은 ‘자유’, ‘인문’, ‘기초’의 개념을 포괄하는 ‘인문 교양교육’이 갖는 보편성과 더불어 그리스도에 토대를 둔 특수성을 지닌 ‘그리스도교적 인문 교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교교육 방법의 재개념화

가톨릭 종교교육의 방법은 학습자의 자유를 존중하며 이를 신앙과 연결하여 자기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실천적 방식이다.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에 담긴 <종교학> 교과와 총괄 목표는 종교와 연관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활 등을 토대로 종교와 인간에 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이 <종교학>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 강화 및 내적 자극을 통한 학습 동기를 일으키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조합을 장려한다(Sohn, 2016: 86). 특히 ‘성찰적 안목과 태도’라는 목표를 위해 학습자가 종교현상을 다양한 각도로 깊이 사유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는(Ko, 2016: 24)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적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성찰적 안목과 태도’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나 근거가 불충분하다. 또한 성찰적 종교교육의 모형이 종교 교양교육과 신앙교육 간의 성격, 교양 과목으로서의 <종교학>이 추구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Kim, 2016: 34-35). 즉, <종교학> 교과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인지적 영역에 치우쳐 있어서 인간이 종교를 통해 지향하는 개인적, 영적, 내면적 세계와의 연결 등에 한계를 지닐 것

으로 예상된다.

가톨릭교육은 인간 존엄성의 영적 차원을 강조하며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가톨릭교육이 말하는 ‘자유’는 하느님 모습과 닮게 창조된(Gn 1:26) 인간 존엄성의 표징이며, 진리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학교는 진리와 자유 모두에, 곧 진리 안에 있는 자유에 봉사한다(Grocolewski, 2005: 13-14). 진리와 분리된 자유를 가르치는 것은 거짓 자유를 가르치는 것으로, ‘참된 인간 공존의 붕괴를 야기’(Evangelium Vitae, 20)¹⁾하게 된다(Grocolewski, 2005: 14). 왜냐하면 진리와 분리된 자유를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마주할 뿐, 자유에 기반하여 지켜야 할 도덕적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자유의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로써 복잡하고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꿰뚫어 사고할 줄 알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다(Grocolewski, 2005: 14).

토마스 그룹은 신앙교육자들이 다양한 수준의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모형을 제시한다(Groome, 2014: 395). 그것은 “삶(life)에서 신앙(Faith)으로, 다시 삶(LIFE)으로”의 접근이다. 각각의 단계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들의 순서는 다양하게 변형되고 새롭게 결합될 수 있다(Groome, 2014: 387). ‘삶’(life)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떨어진 모든 것을 의미한다. 종교교육은 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을 통해 신앙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 종교교육은 신앙과 신앙이 제공하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신앙과 이론이 삶의 실천과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Faith) 자기 삶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더 실제적이고 깊게 이해하게 된 삶이 ‘다시 삶으로’의 삶(LIFE)이다. 따라서 ‘다시 삶으로’의 삶은 삶과 신앙 사이의 연결과 통합으로서의 삶이다(Groome, 2014: 404). 이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의 접근방법은 경험과 교리를 모두 담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경험적이며 귀납적 방법인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교리적이며 연역적인 방법이다. 이 접근은 삶과 신앙이라는 두 원천을 연결하여 사람들이 그 두 원천을 실천적이고 생동감 있으며 생명을 주는 신앙으로 통합하도록 격려한다(Groome, 2014: 394).

가톨릭 종교교육은 단순히 인지적 종교 일반에 대한 학문이나 단순히 이성적이고 개념화되고 체계화된 고정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 종교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구원 사건을 증거하여 전달해 주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신앙의 빛으로 재해석된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뿐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그로부터

1) 가톨릭교회 문서는 동일저자가 많아 문서의 제목과 향으로 표시하고, 반복되는 문서는 약칭으로 표시한다.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Kwak, 2007: 237-238). 그러므로 가톨릭 종교교육의 방법은 학습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구성주의적 학습방식을 지니되, ‘삶과 신앙’을 연결하여 신앙의 빛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보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자기 삶의 의미를 깊게 하는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다.

3) 종교교육자의 재개념화

인간은 삶과 죽음, 죄와 용서, 고통과 행복 등 인간성의 밑바탕에 잠겨있는 수수께끼를 종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종교’(宗教, religion)는 ‘가장 높은 가르침’이며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종교는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각의 종교는 인간 본성에 본래부터 들어있는 ‘종교성’(宗教性, religiosity) 내지 ‘종교심’에서 나온 것이다(Park, 2002: 5). 이를 바탕으로 종교교육은 종교성을 지닌 인간이 ‘종교적 진리’를 습득하게 만드는 교육이며, ‘종교적 진리’인 종교현상과 초자연적 진리를 교육하는 것이다(Choi, 2005: 314). 이때 ‘종교적’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경험과 인식이 내포하는 초월적, 명상적, 신비적, 직관적 차원을 표현한 것이다. 영적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일은 교육을 단순히 세속적 성공과 더 안락한 생활을 위한 정보의 습득 도구로 여기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욱 절실한 것이다(Grocolewski, 2005: 13). 그러므로 종교교육자는 종교와 관련 현상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적절한 시각, 다양한 종교에 대한 종교 일반적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톨릭 종교교육에서 교육자는 그리스도교적 영성을 지니고 자기 삶을 통해 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모든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관계이다(Choi, 2005: 328). 종교교육자는 교과교육의 전문가, 학생 생활지도 및 인격적인 상담자로서의 보편적 특성과 함께 자기 종교에 바탕을 둔 종교 문화인으로서의 특수성을 살아가는 중층적 역할을 지닌다(Yang, 2008: 6). 가톨릭교육자는 “가톨릭학교가 그 목적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주역”이며, “학생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지도하고 신앙의 소재를 가지고 학생의 인간적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계몽하는 숭고한 위치”에 있다. 가톨릭학교 교육자는 “확증된 일반적 지식과 종교 지식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진보하는 시대의 발견에 알맞는 교육 기술을 풍부히 체득”하고, “자신들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 결합되고 사도 정신으로 충만하여 삶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께 증거를 보여드려야”한다(Gravissimum Educationis, 8; The Catholic School, 40). 이를 위해 가톨릭교육자는 “자기 자신의 종교적 확신과 일치하고 학교의 정체와 부합하는 교리를 가르치며, 언제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자세를 갖추고, 학생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따뜻하게 진심으로 칭찬해줌으로써 교사 자신의 신앙을 증거해야 한다”(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 40-43).

가톨릭학교는 학습자들이 한 공동체의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 생활에 참여하도록 준

비시키는 일을 통해 사회에 독특한 기여를 한다. 가톨릭학교는 선의, 직업의 고귀함, 타인 존중, 정의 그리고 자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시민 덕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을 헌신적으로 이행해왔다(The Religious Dimension of Education in a Catholic School: Guidelines for Reflection and Renewal, 45). 가톨릭학교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초월성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가톨릭교육의 고유한 목적은 학생들을 전인(全人)으로 기르는 것이며, 이 세상의 바람직한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즉, 복음의 누룩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길러주어 세상의 시민이 될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Grocolewski, 2005: 13). 그러므로 가톨릭 교육자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의미를 지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Educating Together in Catholic Schools. A shared Mission between Consecrated Persons and Lay Faithful, 15)이다. 또한 가톨릭교육자는 “무생물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교육시키는” “영혼의 교육자”이다(La Scuola Cattolica Alle Soglie del Terzo Millennio, 19). 그러므로 가톨릭 종교교육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지향을 지니고, 자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바탕을 둔 초월적 전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즉, 가톨릭교육자는 ‘전인적 삶을 위한 영성교육’으로서의 가톨릭교육을 위해 그리스도교적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 가톨릭교육은 이들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

IV. 결론

2021년 한국 갤럽의 한국인 종교현황에 따르면,²⁾ 종교인의 비율은 2004년 54%에서 점차 줄어 2021년 40%이다. 2000년대 이후 종교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 20,30대의 탈종교 현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교회 청소년 신자층의 주를 이루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수는 지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³⁾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학교를 통한 청소년의 종교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삶에 종교적 경험을 더하는 것은 교육과 종교가 갖는 공통적인 목적인 자신의 삶을 고양하고 앎을 삶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2) 한국 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종교현황은 2021년 3월18일에서 4월7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원 인터뷰의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2004년에는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21년에는 22%에 불과하며 30대의 경우에도 2004년 49%가 2021년 30%로 감소하였다. 2021년 한국인의 종교분포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이다.

3) 참조,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 이에 따르면 2021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수는 2019년과 비교하여 중등부 25.4%, 고등부 11.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1-2021년 사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 사태는 종교 본질에 대한 반추와 종교가 인류에게 왜 필요한지 돌아보게 해주는 한편 종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역기능적인 면으로는 접촉의 제한 때문에 종교의 기능이 위축된 점, 종교 인구의 감소,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Kim, 2022: 6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는 공공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Shin, 2021, 25).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건강한 영성을 바탕으로 타종교와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종교 간 소통과 연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더욱 요청된다. 현행 공교육 체제하에서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의 연계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 즉 교양 차원의 종교교육을 추구한다. 이것은 종교의 도덕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를 추구한다(Kim, & Ko, 2003: 126).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교양교육은 단순히 ‘인문학을 통한 인간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휴머니즘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은 ‘인간이 자신을 초월한 가치와 목적을 향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Park, 2001: 76).

오늘날 다종교 사회에서 연령이 낮은 경우에 종교가 없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청소년 학습자들이 종교로부터 인간 삶의 의미있는 통찰과 지혜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삶과 종교> 교과가 인간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종교에 대한 삶의 지혜를 학습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삶과 종교> 교과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내용과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종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시민사회에서 요청되는 삶의 지혜, 종교가 갖는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는 세계 시민사회, 고도화된 디지털 정보기술 사회,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 태도 그리고 실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양 교과이다. 교육, 특별히 종교교육이 추구하는 ‘앎’은 종교의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다. 즉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 인식의 주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 스스로 알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Park, 2008: 142).

가톨릭학교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학교”이며, “완전한 교육의 현장”이다(La Scuola Cattolica Alle Soglie del Terzo Millennio, 9,11). 가톨릭학교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The Catholic School, 34)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랑과 자유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을 실현한다(Kim, 2004: 105). 가톨릭학교는 “그 교육학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그리고 건전한 교육적 전망에 비추어 세상에 이바지하도록 부름받고 있기 때문이다”(Educating to Intercultural Dialogue in Catholic Schools: Living in Harmony for a Civilization of Love, Intro. 이하 Intercultural Dialogue). 이 때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은 “인성교육 전체에 이바지하고 지식을 삶

의 지혜로 바꿀 수 있게 하며, 문화와 인류에 대한 연구로 교회와 인류를 풍요롭게 한다”(Religious Education, 17-18). 가톨릭학교의 교육은 “직업적 투신, 진리와 정의와 자유의 옹호, 타인의 견해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에 대한 몸매 뻗 봉사자세, 학생들에 대한 친밀한 헌신과 모든 사람과의 형제적 연대,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윤리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 52).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은 신앙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그리스도교 생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에 바탕을 둔 종교교육의 재개념화는 종교교육의 내용에서 “초월적 차원에 열린 인간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적 사회적 책임이나 그 밖의 덕목들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사회의 공동선에 이바지”(Religious Education, 10,18)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교육의 방법에서는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의 접근과 같이 삶과 신앙의 두 원천을 실천적이고 생동감 있으며 생명을 주는 신앙 쪽으로 통합하도록 격려하여 실천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아갈 결단을 내리도록 돕는다(Groome, 2014: 394-399). 이러한 종교교육은 ‘신앙의 인식적 차원인 믿음, 하느님과의 내적 친밀감, 행위적 차원에서의 실천’(Cho, Kim, & Woo, 2012: 201; Kim, 2020: 194)을 지닌 교육자들을 통해 드러나고 실천된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다음 말씀은 종교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물론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초월적 영역이 교육의 온전한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교육은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방식의 교육은 청소년들이 모든 실재에 관한 인간적 가치관을 키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실재에는 초월성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최대의 교육위기는 초월에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교육하되 초월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단절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To participants in the World Congress on “Educating Today and Tomorrow. A Renewing Passion”).

References

[Primary Sources]

- Pope Francis (2015). *To participants in the World Congress on “Educating Today and Tomorrow. A Renewing Passion.*
- Pope John Paul II (1995). 「생명의 복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Evangelium Vitae*,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Pope Paul VI (1975). 「현대의 복음선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Evangelii nuntiandi*.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1982).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1982). *Lay catholics in schools: Witnesses to faith*.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1988). 「가톨릭학교의 종교적 차원: 성찰과 쇄신을 위한 지침」. Congregation for Education (1982). *The Religious Dimension of Education in a Catholic School: Guidelines for Reflection and Renewal*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1977).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1977). *The Catholic Schoo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1997).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1997). *La Scuola Cattolica Alle Soglie del Terzo Millennio*.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2007). 「축성생활자와 평신도의 교육사명인 가톨릭학교교육」. 가톨릭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문헌.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2007). *Educating Together in Catholic Schools. A shared Mission between Consecrated Persons and Lay Faithful*.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2009). 「학교 종교 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2009). *Circular Letter to the Presidents of Bishops' Conferences 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2013). 「가톨릭학교의 문화 간 대화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교회문헌. (Translated in English) Pontifical Council for Catholic Education (2013). *Educating to Intercultural Dialogue in Catholic Schools: Living in Harmony for a Civilization of Love*.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 제2차 바티칸공의회 (2013).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The Second Vatican Council (2013). *Gravissimum Educationis*. Seoul: Kore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Secondary Sources]

- Cho, Y. K. (2016). 2015 Revised Curriculum in Religious Studies and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Second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103-128.
- Cho, Y. K., Kim, K. Y., & Woo, J. W. (2013). 가톨릭학교 교사의 신앙 · 헌신 · 가톨릭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서울: 마리아회유지재단 (Translated in English) A Study on Catholic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Faith, Devotion, and Catholic Education. Seoul: Mary Congregation Foundation.
- Choi, J. G. (2005).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Schools: Definitions, Objectives, and Method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1, 317-342.
- Choi, J. G. (2005). Critical Issues on the Religious Education of Korean Catholic Schools.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17(2), 209-234.
- Chung, C. H. (1986). Public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 21-37.
- Chung, C. H. (2001). The 7th Curriculum Revision and Teaching Relig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3, 3-42.
- Groome, T. H. (2011). *Will There Be Faith?: A New Vision for Educating and Growing Disciples*. 조영관, 김경이, 임숙희 옮김 (2014).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 Kim, C. B. (2004). An Attemp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Religious Education.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34(1), 297-327.
- Kim, C. J., & Ko, B. C. (2003). The Points of Issue of Religious Education Based upon 7th. National Curriculum Standard and Its' New Direction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7, 107-132.
- Kim, C. J., & Ko, B. C. (2004). Training Process and In-service Training Program for Religion Teachers. *Korean Teacher Education Research*, 21(2), 231-255.
- Kim, C. J., & Ko, B. C. (2016). Religion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for Christian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7, 177-209.
- Kim, C. S. (1992). Spring Public Lecture/ Religious Pluralis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Theology.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9(1), 407-445.
- Kim, C. S. (2001). Issues and Vistas in Korean Religious Educatio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0, 27-40.
- Kim, C. S. (2007). A Study of Religion Textbooks in Contemporary Korean High Schools.

-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6, 41-53.
- Kim, C. S. (2016).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 of Humanism'. *Literature and Religion*, 21(1), 1-15.
- Kim, C. Y. (2011). The Accreditation Process Change and the Cultivation Suggestion for a New Religious Education Textbook.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7, 19-41.
- Kim, E. Y. (2020). Development of Religious Textbooks for Buddhist Missionary Schools: System and Reality, the History of Encounter and Paralle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 41-54.
- Kim, G. S. (2005). Conceptual Model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Korean Schoo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1, 5-29.
- Kim, G. S. (2016). Issue and Task on Subject Matter Education of 'Religion' in the Revise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of Korea in 2015.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31-51.
- Kim, G. S. (2022). Future Tasks and Prospects for Korean Religion in the Post Covid 19 era, focused on the Viewpoint of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82, 63-83.
- Kim, K. Y. (2004). The Mission of Catholic Schooling.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8, 97-119.
- Kim, K. Y. (2022).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Identity of Korean Catholic Schools, *Research journal of Korean church history*, 61, 137-185.
- Kim, N. H. (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Catholic Textbooks in Concordance with Glocalis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7, 43-64.
- Kim, N. H. (2020). Charisma at the Crossroads of Concentration or Diffusion - with a focus on textbooks for religious education at Catholic high schools -.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 1-20.
- Kim, Y. J. (2001). Liberal Education in the University and Relig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2, 7-25.
- Ko, B. C. (2005). The problems and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1, 111-141.
- Ko, B. C. (2007). Education about Religions in Korea: Focus on a secondary mission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46, 1-34.
- Ko, B. C. (2016). The Revision History of the National Curriculum (Religious Studies) and 2015 Religious Studies Cours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1-30.

- Ko, J. H. (2001). A Study of Buddhistic Education in Secondary level at the 7th Curriculum Revis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3, 63-81.
- Ko, J. H. (2006). A Study of Practical Alternative of the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3, 17-30.
- Koo, B. M. (2011). Directions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in Korean Public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0, 63-100.
- Kwak, J. S. (2007). 계시의 역사성과 교리교육. [translated] The historicity of revelation and catechesis. *Reason and Faith*, 33, 211-238.
- Lee, E. B. (1987). Direction of political movements in multifaith societies and religious communities. *Open Square*, 173, 198-204.
- Na, I. S. (2002). The Character of Renaissance Humanities and Liber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28, 29-51.
- Paek, S. S. (2019). Reconceptualization of General Education through Reestablishing Appellation of Gen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1), 141-161.
- Park, B. S. (2003). *Integral Approach to Restoration of the Religiosity in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 Park, B. S. (2008). A Research on the Religious Dimensions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8, 141-159.
- Park, I. Y. (2001). General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2, 73-100.
- Park, I. Y. (2002). Religion and religiosity. *Journal of Human Studies*, 3, 47-67.
- Ryu, S. M. (1994). A Reflection on the Methodologies of the Religious Studies : Focussing on the Situation of Korea.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13, 85-103.
- Ryu, S. M. (2013). The Significance and Reality of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0, 1-34.
- Son, D. H. (2006). The meaning of Liberal Education of Humanities and its Mission. *Journal of the Humanities*, 37, 203-231.
- Sohn, W. Y. (2010). Conflict on Religious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2, 211-230.
- Sohn, W. Y. (2016). 2015 Revised Study of Religion Curriculum and Christian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79-102.
- Sohn, W. Y. (2020). A Critical Study on 'Religious Studies' Textbook of Protestant School in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Peac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 21-40.

- Song, S. J. (2006). A Study on the Models for Free Religious Education through the Analyses of Three Religious Alternative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3, 49-75.
- Shin, K. C. (2011). Present Situation & Task in Developing Textbooks of 'Religion' -focusing on effect of educational proces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7, 1-18.
- Shin, K. C. (2021). Disaster and Religion: Epidemics, COVID-19 and Relig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81(2), 9-31.
- Standard Language Dictionary. (n. d.). 교양. Retrieved 2025. 5. 11.,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e707c9aeebb45109219935f1b5ee88d>
- Yang, E. Y. (2008). Quality of Religious teacher and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7, 1-9.
- Yun, E. H. (1986). Religious education in a multi-faith cultur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2, 3-10.
- 그로콜레프스키, 제논 (2005). [특집 -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심포지엄 격려사. 사목. (Translated in English) Grocolewski, J. (2005).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Symposium Encourager. *Pastoral care*, 318, 12-15.